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1. 8

Manna of Choonghyun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신명기 · 여호수아 · 고린도전서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믿음의 능력

Contents

8 매일성경묵상 고린도전서 9장 ~ 고린도전서 14장

16 1과 300명의 영웅

24 매일성경묵상 고린도전서 15장 ~ 신명기 30장

32 2과 확 신

40 매일성경묵상 신명기 31장 ~ 여호수아 2장

48 3과 어려운 상황에서의 보호하심

56 매일성경묵상 여호수아 3장 ~ 여호수아 8장

64 4과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다

72 매일성경묵상 여호수아 9장 ~ 여호수아 11장

『증언의 만나』는

가정에배 · 구역에배 · 대학정년부 GBS를 돕기 위해 증언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8 August 2011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 고린도전서 9장	2 고린도전서 10장	3 고린도전서 11장
7	8 고린도전서 15장	9 고린도전서 16장	10 신명기 27장
14	15 신명기 31장	16 신명기 32장	17 신명기 33장
21	22 여호수아 3장	23 여호수아 4장	24 여호수아 5장
28	29 여호수아 9장	30 여호수아 10장	31 여호수아 11장

September

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목요일

4 고린도전서 12장

11 신명기 28장

18 신명기 34장

25 여호수아 6장

금요일

5 고린도전서 13장

12 신명기 29장

19 여호수아 1장

26 여호수아 7장

토요일

6 고린도전서 14장

13 신명기 30장

20 여호수아 2장

27 여호수아 8장

교회 주요일정

8월 28일

제4차 학습세례식

나의 주요일정

- 1 2011년,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 2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 3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4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풀주소서.
- 5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 6 1년 1인 1명(1 · 1 · 1)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7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8 충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 · 함양충현농원) 및 준공된 사랑관과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 9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 10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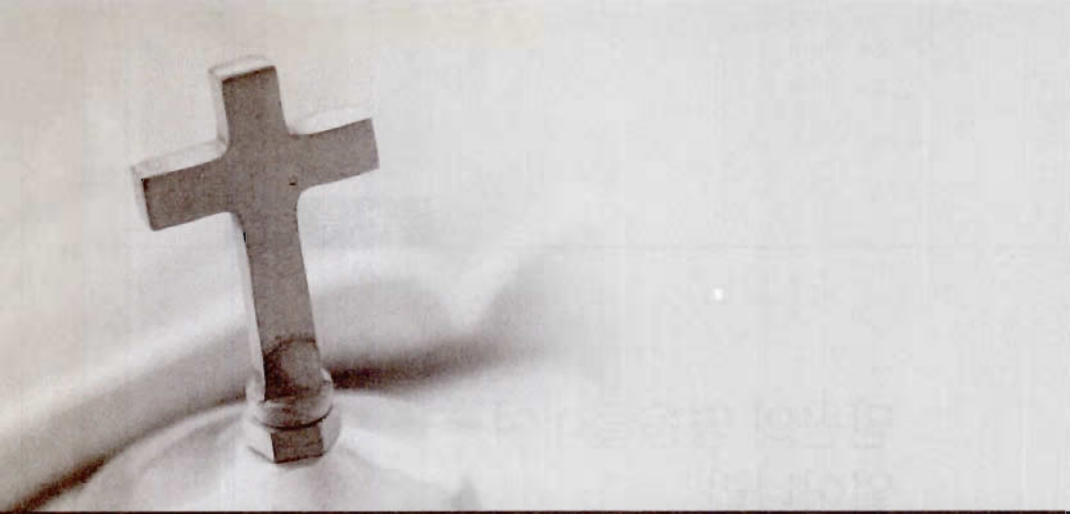
믿음의 영웅들이여 일어나라

기드온의 300명의 영웅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행동하는 참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행복하게 해 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용감하고, 주의 깊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히 10:37~39).

모든 신자들은,
즉 예수님에 의해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참 신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드온의 삼백 용사가 됩시다.
믿음의 영웅들이여 일어나라!

2011년 8월을 맞이하여 위일목사 김성관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종교/신앙/영성

매일성경묵상

가정예배·구역예배·대학청년부 GBS

HOLY BIBLE

바울의 사도권

고린도전서 9장
찬송가 312장

목/상/노/트

• 인친(2절) : 인(Seal, 스프라
기식은 소유자의 상징, 이
를, 직함들이 새겨진 도구
로 소유권의 확증 또는 문
서 및 법령의 진실성을 인
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인친'이라는 표현은 고
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적
권위의 합법성을 확증해 주
는 것이며 동시에 그들이
그의 추천서라는 것이라고
후 31~3 참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자신이 그들에게 주님의 사도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으로서 마땅히 누릴 권리와 자유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실 권리가 있으며, 아내와 함께 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도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권리도 있었습니다(4~11절). 그러나 그는 이같은 모든 자유와 권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쓰지 않고 참았습니다(12절). 그는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 택함을 입었으므로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땅히 자신이 할 일이며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16절). 그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모든 자기부인의 삶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삶이 되기 위한 것임을 말해줍니다(18~23절).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자유한 사람이며, 모든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종 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종 된 자의 모습임을 깨달아 알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복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대(고전 9:16)

기도제목

① 복음을 위하여 절제하고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우상 숭배

2

모세의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됩니다(16절).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또한 음행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며,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7~10절).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넘어질까 조심하고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해 내야 합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음을 안 바울은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합니다(14절).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곧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될 수 있기에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18절). 물론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우상은 궁극적으로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형제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23~33절).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유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즐기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 자들로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고린도전서 10장

찬송가 368장

목/상/노/트

• **즐거** 하는 제6절 : 즐겨 하는(에피뮈메테스)이라는 표현은 '원하다, 갈망하다' (에피뮈메오)에서 파생된 용어이다. 이 용어는 이 말 씀에서 유일하게 사용되는 표현으로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까지를 표현하는 용어이다.

기도제목

① 내게 주어진 복음의 놀라운 자유를 내 유익을 위하여 쓰지 않게 하소서. ②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 학교 학생들이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머리를 가리는 것과 성만찬

고린도전서 11장

찬송가 227장

목/창/노/트

고린도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문제들은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과 성만찬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문제에 대해 바울은 분명히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남자가 높고 여자는 낮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모두 동등한 존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순수한 질서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논쟁하지 말라고 명합니다(2~16절). 바울은 성만찬을 행할 때 교회 안에서의 나뉘임으로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먼저 먹고 취하고, 또 나중에 참여하는 자는 주리는 모습에 대해서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설명해줍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고 그 예식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17~34절).

고린도 교회를 시끄럽게 한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진실로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충돌과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율음을 주장할 때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부인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매 순간 회개하면서 나를 부인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주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고전 11:24)

• 만찬(20~21절) : 만찬(데이프논)은 저녁에 먹는 음식 곧 저녁에 먹는 음식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만찬에 수식어가 붙어서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21절에 자기의 만찬이 있고, 20절에 주의 만찬이 있다.

기도제목

① 내 의로움과 내 율음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기도노트

성령의 은사

목요일

4

복음에 대하여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우상에게 끌려다녔으나 이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성도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1~3절). 성도는 한 성령으로부터 여러 은사와 직분을 받습니다(4~6절). 지체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을 말함, 방언을 통역함. 이 모든 일이 한 성령이 행하시는 일입니다(8~11절). 오직 그분의 뜻대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성도를 한 몸된 지체로 여겨야 합니다. 몸의 다른 지체를 보고 쓸 데가 없다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욱 중요하고 이를 더 소중하게 다루는 것처럼 우리는 더 연약한 성도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한 지체의 고통은 모두의 고통이며 한 지체의 영광은 모든 지체의 영광입니다(12~27절). 혹 교회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직분이 있습니까?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모든 능력을 가진 자들은 주님의 뜻대로 세움을 입은 한 지체입니다(28~31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각각의 은사는 결코 자랑할 것이나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같은 은사 앞에서 성도는 다른 이를 무시하는 마음이나, 시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광에 참여하는 것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전 12:12)

고린도전서 12장

찬송가 196장

목/상/노/트

•원하시는 대로(18절) : 이 용어는 바라다, 원하다, 좋아하다,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진 용어이다. 이 용어는 본래 뜻, 의도, 의향에서 파생되었다. 곧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행함에 있는 것이다.

기도제목

①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기도노트

고린도전서 13장
찬송가 299장

목/상/노/트

12장에서 성령의 여러 은사를 설명한 바울은 마지막 3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이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시기할 것이 아니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 은사는 바로 13장 전체에 기록되고 있는 사랑입니다. 만약 성도가 다른 어떤 은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은사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입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합니까? 사랑이 없다면 이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팡파리일 뿐입니다(1절). 사랑이 없이는 예언하고 놀라운 믿음을 가진 것도 아무 것도 아니며(2절),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3절).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는 은사는 부분적입니다(9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것들은 온전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능력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온전해질 것입니다(10~12절).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사랑의 은사는 이미 온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입니다(13절).

두 세계를 사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들은 한결없이 부분적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사랑의 은사는 실로 온전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통하여 사랑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고전 13:2)

• 온유하며(4절) : 사랑의 속성을 표현하는 용어로 온유(크레스투오마이)라는 용어는 '친절을 보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친절하다, 온화함을 보이다라는 용어 크레스토스에서 유래했으며 이 단어는 기독교 문헌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기도제목

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예언과 방언과 통역

6

바울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합니다(1절).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인데 반하여 예언은 다른 성도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함으로 교회를 세우기 때문입니다(2~4절). 성도는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여야 하나 특별히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을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12절).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일 때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방언을 말함에 있어서 너무 많은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만 차례를 따라 하고 반드시 통역하는 자를 세우라고 말합니다(27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28~33절).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교회 안에서 철저히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모든 은사는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오직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어떤 신령한 것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자는 더욱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전 14:20)

고린도전서 14장

찬송가 186장

묵/상/노/트

• 사모하되(1절) : 사모하다라는 표현은 '열정적이다, 열심이다'라는 용어 '젤로오'(열심당을 뜻하는 젤롯이아에서 파생되었다)의 번역어이다. 그러므로 사모하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상태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열정적으로 노력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기도제목

① 나를 오직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 주소서. ②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십자가 “쉬움”

한여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 중이거나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막 6:31)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쉼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참된 쉼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골 1:20).

우리는 십자가에서 떠난 생각, 말,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순간의 욕심 때문에

영원한 은혜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쉼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시 23:1~2).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7 주일

8 월요일

☐ 고린도전서 15장

9 화요일

☐ 고린도전서 16장

10 수요일

☐ 신명기 27장

11 목요일

☐ 신명기 28장

12 금요일

☐ 신명기 29장

13 토요일

☐ 신명기 30장

300명의 영웅들

1

| 초점 |

믿음은 영웅이 되게 한다

| 찬송 |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 본문 | 사사기 7:7~8

7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훔아 먹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8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삼백 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300명의 군인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과 미디안처럼, 국가 간의 전쟁 임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실제로 많은 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을 이스라엘의 적이 되게 하셨습니다(삿 6:1). 미디안 족속은 잔인한 적군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피해 산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삿 6:2).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을 몹시 괴롭혔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울부짖었습니다(삿 6:6).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삿 6:7~10).

삿 6:12~14 _____

기드온은 자신을 부르신 분이 주님이라는 증거를 원했습니다(삿 6:17).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당신의 권능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셨고(삿 6:21~22), 두 개의 기적을 더 보여주심으로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삿 6:36~40). 기드온은 주님이 자신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맞서 싸울 32,000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군사의 수를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300명의 영웅들만을 선택하셨을까요?

용감한 사람들

이 300명은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삿 7:2~3). 이스라엘은 적의 강력함을 보았습니다. 대다수는 두려워했고, 도망가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10,000명의 용감한 사람들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은 믿음과 상반되지만, 믿음과 용기는 서로 간에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수 1:6~9 / _____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_____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_____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시편 27:14 _____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유혹자 앞에 설 때 용감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비유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5~17)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질 때 용감해집니다. 하지만 기도온의 10,000명의 군사들은 용기는 있었지만 영웅이 되기에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주의 깊은 사람들

이 300명은 주의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삿 7:4~5). 9,700명의 사람들은 무릎 꿇고 물을 마셨고, 오직 300명만이 반듯하게 서서 자신의 손을 이용하여 물을 담아 마셨습니다. 다들 목이 말랐던 상황에서 무릎 꿇은 사람들은 적에 대한 경계보다 물을 마시는 데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입으로 물을 가져다가 훔쳐 마신 사람들은 물을 마시는 것보다 전투를 더 중요시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좋은 군사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딤후 2:3~4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전투입니다. 베드로전서 5:8~9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 주님은 300명만 싸우도록 남기고, 9,700명의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보내셨습니다. 이 300명은 적군의 수가 훨씬 많고, 자신들은 가진 무기도 없을 뿐더러 적군의 무기가 자신들의 손에 들려진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유일하게 가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드온의 리더십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었습니다.

마 25:13

※ 지금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헌신적인 사람들

이 300명은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영웅이 되었던 이유입니다. 이들은 적군의 강점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향한 이들의 원동력은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특별한 훈련이나 전략 또는 무기들은 없었습니다.

엡 6:12~13 / 우리의 싸움은 □과 □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의 □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 □□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항아리, 횃불, 나팔을 각자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300명은 논쟁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듣고 순종하였으며, 진실로 주님께만 헌신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든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300명은 주님께 헌신하였고, 주님이 말씀하신 낯선 무기들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 지금 나에게 있는 영적 무기의 종류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고후 2:14

고후 12:9 /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_____
_____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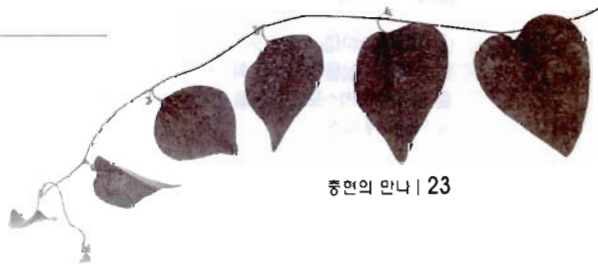
우리는 300명의 영웅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해 읽을 때 우리는 행동하는 참 믿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행복하게 해 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모든 신자들, 즉 예수님에 의해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참 신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영웅으로 만듭니다.

히 10:37~39 _____

※ 요한일서 5:4 말씀을 찾아서 읽고, 함께 암송해 보십시오.

| 간절한 기도 |

- 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 ②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 ③ 복음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영웅이 되게 하소서.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찬송가 162장

목/상/노/트

• 강림(23절): 강림(파루사)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임재, 현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며, 음, 도착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용어는 군대의 도착에 대해서까지도 전문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이 복음의 핵심되는 것임을 전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이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12절). 이에 바울은 다시 한 번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바에게 보이시고 열두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백 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는 바울에게도 분명히 보이셨습니다(3~8절).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13~21절). 그리스도께서는 원수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썩어지는 이 땅의 형상만을 입은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될 것입니다(35~58절).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썩지 않을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만약 이 소망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이 땅의 썩어질 소망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소망은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그 순간에 있어야 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고전 15:51)

기도제목

① 이 땅의 썩어질 소망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승리를 주심을 감사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연보와 끝 인사

9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바울은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해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매주 첫날에 수입에 따라 모아 두었다가 그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2절). 또한 그는 자신의 사역 계획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며 저울을 그들과 함께 지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3~9절). 그리고 디모데가 갈 것인데 그가 가면 그를 멀리하지 말고 잘 맞아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것을 권면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기를 바랐습니다(13~16절).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다른 지체들, 곧 아시아의 교회들,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전하는 안부를 적고 있습니다(17~20절).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직접 편을 들어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사랑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것으로써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21~24절).

고린도전서를 마치고 있는 바울의 당부 속에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와 섬김이 한 가지 소망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와 만남 속에는 한 가지 소망이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22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입니다. 만약 이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모든 헌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소망 안에서 성도는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고전 16:22)

고린도전서 16장

찬송가 492장

독/상/노/트

· **시원하게(18절)** : 시원하게 하더라는 표현은 ‘힘을 주다, 쉬다, 안식하다’라는 의미의 용어이다. 이 표현은 단순히 육체의 힘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마 11:28에서 예수님의 전체 구원사역을 포괄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기도제목

① 주께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② 총현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함양총현농원) 및 준공된 사랑관과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로 15:2)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27장
찬송가 549장

목/상/노/트

• **그리심 산(12절)** : 팔레스타인 중부에 있는 해발 881m의 산으로서, 세겜 남쪽에 위치한다.

• **에발 산(13절)** : 그리심 산과 마주보고 있는 산으로서 해발 940m이며, 세겜 북쪽에 위치한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8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후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른 후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곳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1~8절). 둘째는 그리심 산과 에발 산에 양편으로 갈라서서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11~26절).

그리심 산에서의 축복과 에발 산에서의 저주는 신명기 11장에서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심 산과 에발 산에 각각 6지파씩 나누어 서게 하고,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을 각각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1번이나 “아멘 할지니라”(16~26절)라고 말씀하시며 ‘아멘’으로 반응하라고 하십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은 아멘 하지 말라고 해도 아멘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든 원하지 아니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으며, 십자가가 있든 없든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 좋은 것이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면 아멘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에 ‘아멘’ 하라고 하십니다. 저주는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에 우리를 맡겨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신 27:26)

기도제목

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에 나를 맡겨 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이 말씀은 27장의 축복과 저주에 관한 구체적인 해설로서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임하게 될 축복의 내용과 저주의 내용이 광범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여호와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십니다(1~14절). 그러나 만일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습니다(15~68절).

전반부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습니다. 농작물과 가축도 복을 받아 번성하며, 집을 나가도 복이요, 들어와도 복입니다. 원수가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복을 받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어 열매 맺게 하시며, 세계 만민 가운데 우뚝 세워 머리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약속 뒤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순종해야 주십니다.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순종뿐입니다. 그렇다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순종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신 28:2)

신명기 28장

찬송가 449장

목/창/노/트

• **표징과 훈계(46절)** :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할 재난을 가리키며, 이 재난은 미래의 후손들에게 불순종을 경고하는 징표로 사용된다는 뜻이다.

기도제목

① 모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역(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기록된 대로

신명기 29장
찬송가 546장

목/창/노/트

•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
할지라도(19절) : 이 말의
고유한 의미는 분명하지 않
다. 그러나 여기서 쓰인 의
미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
는 뜻이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다 같이 멸망
할 것입니다'로도 번역된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즉 출애굽 구속 사건(2~3절)과 광야 인도 사건(5~6절) 및 아모리 족속 정복 사건(7~8절) 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당위성을 역설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와의 언약에 참여하라는 차별 없는 부르심이고, 시공을 초월하는 초대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10~15절). 언약을 어기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들의 어리석은 자기 위로와 합리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기록된 대로' 반드시 임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16~29절).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애굽의 속박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노예 민족으로 남아 그 압제 하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바로 그 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키면서 언약 준수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언약을 어긴다면 '기록된 대로'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압 평지 언약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된 우리들과 맺은 언약이며,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언약 안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은혜가 기억되어 날마다 순종으로 향하여 가는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신 29:9)

기도제목

①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②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사랑의 채찍

13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신 28:15~68에 나타난 언약대로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긍휼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1~10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깨닫지 못했다고 하거나, 말씀이 너무 멀리 있어 들을 수 없다고 하는 변명은 통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그들의 입과 마음에 두셨습니다(11~14절). 따라서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저주와 사망의 길을 버리고, 순종으로 말미암는 축복과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엄숙히 권고하십니다(15~20절).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집을 떠난 탕자가 어떠한 위치,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눅 15:11~32)과도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스라엘에게 가해진 하나님의 저주는 결코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 연단을 위한 징계요, 회개를 독촉하는 사랑의 채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심판과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마침내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저주를 면할 수 있고, 회개함으로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싸움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0장

찬송가 527장

목/창/노/트

• 마음에 활래를 베푸새(6절)
: 여호와를 저버린 언약 백성이 그를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려면 그가 친히 그들을 내적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셔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신 30:14)

기도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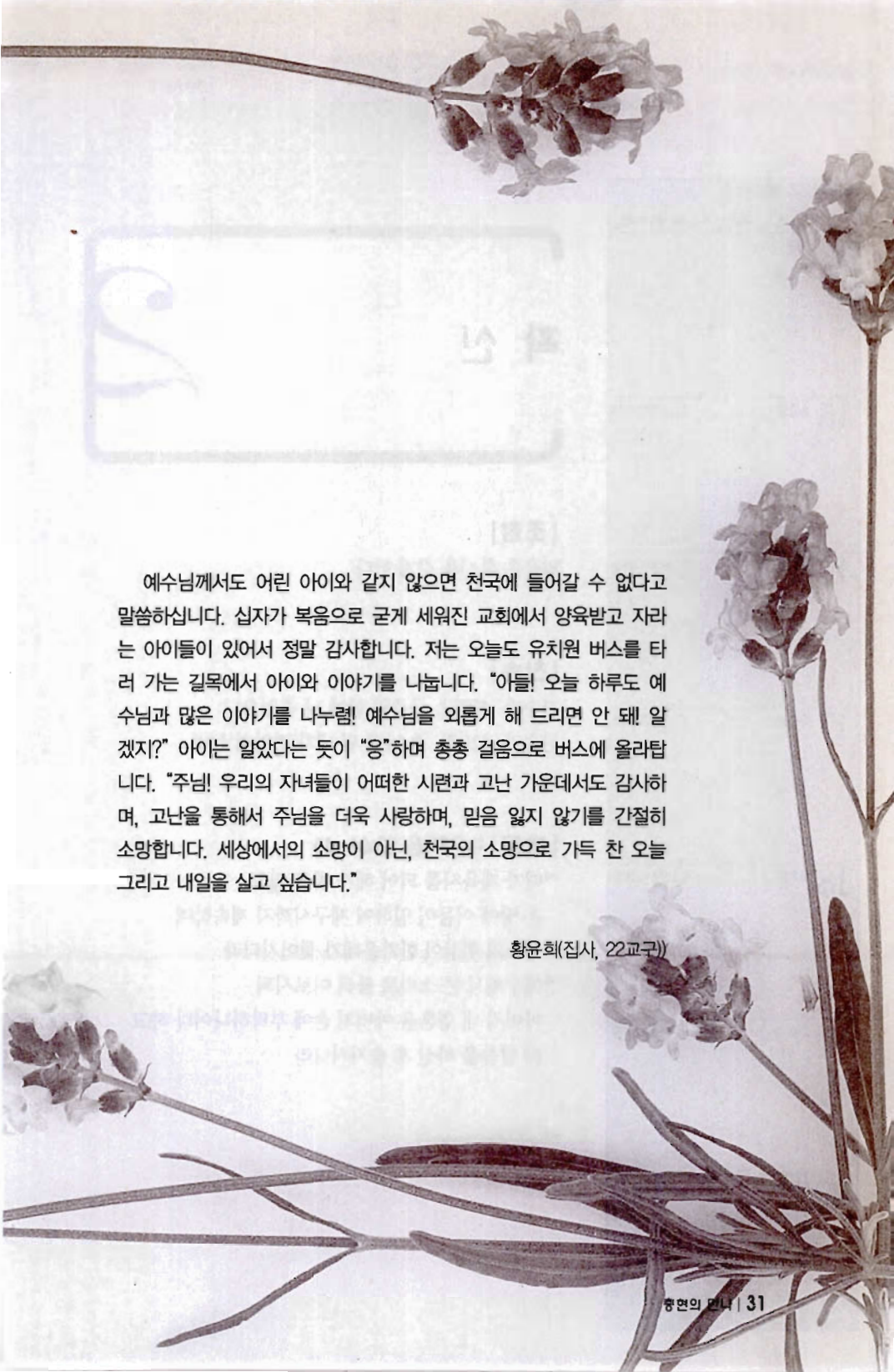
① 나의 삶이 아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게 하소서. ② 2011년, 종현의 모든 성도가 거둔단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노트

마음 속에 계시는 예수님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작은 아이를 씻기다가 아이의 귀로 물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순간 아이는 엉엉 울면서 “하나님 옷이 다 젖잖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 말에 웃음을 짓고는 “어머! 미안해. 정말 하나님 옷이 다 젖었구나!”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노라고 약속하며 그 상황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비록 어린 아이의 말이었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나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굳게 세워진 교회에서 양육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유치원 버스를 타러 가는 길목에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렴! 예수님을 외롭게 해 드리면 안 돼! 알겠지?” 아이는 알았다는 듯이 “응”하며 총총 걸음으로 버스에 올라타입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믿음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의 소망이 아닌,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찬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고 싶습니다.”

황윤희(집사, 22교구)

300명의 영웅들
사사기 7:7~8

2과
확신
누가복음 23:44~46

3과
어려운 상황에서의
보호하심
사도행전 27:24~26

4과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남시다
누가복음 10:25~37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 에 체크하세요	
14 주일	
15 월요일	☐ 신명기 31장
16 화요일	☐ 신명기 32장
17 수요일	☐ 신명기 33장
18 목요일	☐ 신명기 34장
19 금요일	☐ 여호수아 1장
20 토요일	☐ 여호수아 2장

확 신



| 초점 |

믿음은 확신을 갖게 한다

| 찬송 |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 본문 | 누가복음 23:44~46

⁽⁴⁴⁾때가 제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며

⁽⁴⁵⁾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⁴⁶⁾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오늘의 본문말씀은 가장 밝아야 할 한낮의 3시간 동안에 태양이 빛을 잃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인간을 분리하였던 휘장이 둘로 찢어진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정오와 오후 3시 사이에 태양이 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간의 개입 없이 하나의 천 조각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두 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두 사건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분은 태양을 조정하여 빛을 멈추게 하였고, 지성소와 성전의 나머지를 분리하는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 '가상칠언'에 대해서 정리해 보십시오.

로마 군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종들 등 모든 사람들은 갈보리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무서워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울부짖으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 23:46). 이것은 자신의 최후의 숨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드린 개인적인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살펴볼 때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확신입니다!

※ 지금 내가 '확신'하는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과 의 화목

우리 모두는 하늘의 아버지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힘을 잃으셨을 때에도 여전히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와의 관계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자신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어떤 재앙이 닥쳐와도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롬 3:23 _____

요 14:6 _____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죄 때문에 깨졌습니다(창 2:17).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죄의 값을 치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과 혼 모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살전 5:23). 우리의 몸은 세상을 의식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은 자신을 의식하게 만들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으셨고, 이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에게 영적 거듭남을 통한 새 삶을 주십니다.

엡 2:1~2 _____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한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부르듯이 “아버지”라고 울부짖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신뢰하는, 마치 어린 아이처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 1:12

※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는 이 새로운 관계를 가질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종교도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엡 2:8~9 /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롬 5:17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육신의 죽음 후의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 23:46). 수많은 가르침들이 이 말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완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완전한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셨습니다.

요 17:1~2

※ 예수님께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완벽하게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완전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넘어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하여 완전한 평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인간의 영혼의 종착지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분은 순교자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구세주로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성인으로서가 아니라 죄인들의 대속물로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의를 보여주셨습니다.

롬 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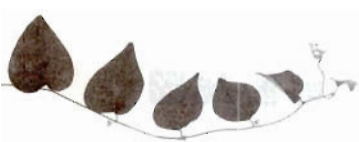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지금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확신을 갖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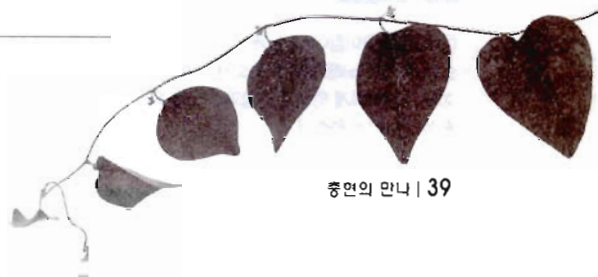
롬 8:38~39

빌 1:6

| 간절한 기도 |

- 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 ② 매순간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를 확신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 ③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증거의 노래

신명기 31장
찬송가 380장

목/상/노/트

모세는 자신이 죽은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확신시키는 말로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1~8절). 또한 자신이 그동안 가르쳐 온 하나님의 율법을 책에 기록하여 매 안식년의 초막절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낭독할 것과 후손들에게 힘써 가르칠 것을 권면 한 후 그 율법책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위탁합니다(9~13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들에게 임한 심판이 자신들의 패역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 주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14~30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게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증거의 노래'가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불리워지는 한 그 노래는 자기 백성들의 타락을 미리 알고 경고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노래는 타락과 심판이라는 이스라엘의 암울한 미래사를 예언하고 있지만 진정 이 노래가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요, 타락 시에는 심판의 원인이 바로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그들로 하여금 마침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언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들은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증거의 노래는 '십자가'입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케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신 31:26)

• 여호수아(3절) : 눈의 아들이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는 구원이시다' 이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식 이름이며, 신약의 헬라어로 풀이하면 '예수' 또는 '예수아'가 된다.

기도제목

① 회개와 돌이킴이 내 삶에 언제나 있게 하시고, 십자가가 내 삶의 증거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모세의 노래

16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신 31:19) 모세가 이스라엘의 미래의 역사를 노래합니다. 그는 친지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노래합니다(1~6절). 그리고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며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고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고 노래합니다(7~14절). 이어서 그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함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며, 고발의 초점은 우상 숭배에 있음을 말합니다(15~18절). 그리고 이 패역함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19~25절).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26~43절).

하나님의 지시대로 노래를 지어 부른 후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법에 순종할 것’을 재차 권면합니다. 순종은 곧 생명이고, 불순종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44~47절). 실로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의 마지막 소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인간적인 서운함과 목전에 다가온 자신의 임종 앞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장래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부를 영원한 찬송이요, 잊지 못할 고백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신 32:1)

신명기 32장

찬송가 533장

목/창/노/트

• **여수론(15절)** : 직역하면 ‘물은 자’라는 뜻이며,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애칭이다. 이 애칭은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기 위해 사 용한 것이다.

기도제목

① 진정한 찬송을 내 입술에 주시옵소서. ② 교회에 등록된 새 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기도노트

신명기 33장

찬송가 88장

목/창/노/트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출하셨고 광야에서 보호하셨으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한 사랑하셨기 때문에 백성 가운데 왕이 되셔서 다스리셨습니다(1~5절). 르우벤 지파는 생존의 복을 받았고(6절), 유다 지파는 여호와의 위해 싸우는 복을(7절),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는 복을 받았습니다(8~11절).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속하는 복을 받았고(12절), 요셉 지파는 형제들 중에 뛰어난 자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을 받았습니다(13~17절). 스불론과 잇사갈 지파는 해상 무역이 번창하는 복을 받았고, 갓 지파는 가장 먼저 땅을 차지했으며, 단 지파는 원기 왕성한 사자 새끼의 복을 받았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서방과 남방을 차지했고, 아셀 지파는 밭이 기름에 잡길 만큼 거대한 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18~25절).

이렇게 모든 지파를 축복한 후에 29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질문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 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이 은혜의 말씀으로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신 33:29)

• **동임과 우람(8절)** : 히브리어로서 그 뜻은 ‘빛과 온전함’이며, 그 모양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왕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에게 물을 때 제사장에게 의해 사용되었다.

기도제목

- 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 같이 얻는 자가 누구냐 라는 고백이 진실로 우리 속에서 울려 퍼지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기도노트

특별한 선지자

18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전역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마침내 열조 때부터 그토록 소망해 온 언약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됩니다(1~4절).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고 마침내 120세의 나이로 그의 지상 사역을 다 완수한 후 평안히 하늘의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5~8절). 모세가 죽은 이후의 모든 사역은 여호수아에게 넘겨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지혜의 신이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었습니다(9절).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10~12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으로 특별하고도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 사람이 없었으며, 모세만큼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을 많이 나타낸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시 바로와의 대결에서 이스라엘이 보는 가운데 여호와와 10대 재앙을 애굽에 내렸습니다. 실로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로서 옛 언약, 즉 율법의 창시자요 중재자였습니다. 이 율법이 지속되는 한 이스라엘 중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다면 그는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모세를 충실한 종으로 두셨던 분이시며,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요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신 34:10)

신명기 34장

찬송가 294장

목/창/노/트

• 종려나무의 성음(3절) : 마
리고 성을 가리키는 별칭이
다(삿 1:16, 3:13 ; 대하
28:15)

기도제목

① 율법의 창시자요 중재자이시며 또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실로 믿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19

여호수아 1장
찬송가 390장

묵/상/노/트

그들에게 주리라

여호수아서는 신명기 마지막 장에 있는 34장 9절 말씀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세우심을 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1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면서 친히 여호수아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이므로 마음을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허락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단계에 이르렀음을 선언하여 주십니다(2~9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선포함과 동시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10~15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순종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약속합니다(16~18절).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었습다. 남으로는 아라비아 사막과 경계하고, 북으로는 레바논 산맥에 이르며, 동서로는 유프라테스 강에서 자중해 연안에까지 이르는 지역이었습니다(4절 ; 창 15:18). 그러나 다윗 왕 때에 이와 거의 근접한 지경까지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된 적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지경을 확보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물잡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위해 담대하게 정복하며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 땅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모든 것, 모든 은혜를 순종함으로 누려야 할 때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수 1:6)

• 주리라 한 땅(6절) :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대성)으로서 찬양에서는 '구원의 영적인 복이란 의미로 쓰인다'

기도제목

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풍성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고 넘치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9)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이방 여인의 믿음

20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믿음을 갖고 있던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 당시에 열두 명의 정탐꾼 속에 포함되어 가나안 땅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자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신앙적인 두려움에 가득 찬 보고를 함으로써 정복 계획이 좌절되는 경험을 했습니다(민 13~14장). 이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다시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탐꾼들의 믿음이 아닌, 이방 여인 라합의 믿음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16절). 그녀에게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만한 통찰력이 있었습니다(9절). 때문에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은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을 도와 준 라합에게 가족의 구원을 약속하고, 그 징표로 창에 붉은 줄을 매어놓을 것을 당부합니다(15~24절).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보호하느라 정작 라합 자신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들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두려움과 신뢰)이 있었기에 그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에 자처했습니다. 라합은 지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방 여인이며 기생이었던 그녀는 예수님의 족보에 딸음의 조상으로 포함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조건이나 상황, 심지어 내가 누구인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수 2:11)

여호수아 2장

찬송가 357장

목/창/노/트

• 붉은 줄(18절) : 피처럼 붉은 진홍색 끈으로 붉은 빛깔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연상하게 한다(출 12:13, 22~23). 초대교회는 붉은 줄을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상징으로 보았다.

기도제목

① 모든 영역에서 나의 상황과 조건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②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그래야만 갈 수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 11:28~29).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핵심을 매번 놓친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로 오라”(마 11:28),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마 11:29)이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쉬를 얻는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런데 그 쉬가 어떤 쉼인지는 모른다. 예수님께 나아가 얻는 쉼을 단순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는 세속적인 쉼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해나 착각하지 말자.

의새어항상 원시 십자호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십이 있다. 그런데 그 십은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일 때 완성된다.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끌어야 하는 팔레스타인의 농사에서 한 마리는 다른 한 마리가 이끄는 대로 가야 한다. 자기 힘을 빼야 한다. 그래야만 하루의 일을 훨씬 쉽게 마칠 수 있다. 힘이 센 자 앞에서 버티면 결국 자기 손해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거운 짐을 맡기라는 것은 자신의 목에 메어진 멍에를 벗어 던지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혼자 지던 멍에를 벗는 대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의미한다(마 16:24).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 즉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 아니, 그래야만 갈 수 있다.

300명의 명승들

사시기 7:7~8

확신

누가복음 23:44~46

어려운 상황에서의
보호하심

사도행전 27:24~26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남시다

누가복음 10:25~37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1 주일

22 월요일 ☐ 여호수아 3장

23 화요일 ☐ 여호수아 4장

24 수요일 ☐ 여호수아 5장

25 목요일 ☐ 여호수아 6장

26 금요일 ☐ 여호수아 7장

27 토요일 ☐ 여호수아 8장

어려운 상황에서의 보호하심

3

| 초점 |

믿음은 상황을 이기게 한다

| 찬송 |

찬송가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 본문 | 사도행전 27:24~26

⁽²⁴⁾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²⁵⁾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²⁶⁾그러한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은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의 전도여행은 위험한 시련들로 가득했습니다. 사역이 끝나갈 무렵에, 바울은 죄수로서 가이사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로 향해 갔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행 27:24)라고 말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로마에서 2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구금되었던 때에도 말입니다.

※ 바울의 복음전파 사역의 과정과 특징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행 28:31

오늘의 본문말씀은 우리에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줍니다. 비록 그는 죄수였지만, 하나님은 큰 성과를 허락하셨습니다. 죄수로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가는 여정 중에 맞닥뜨린 세 번의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살펴봅시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거친 폭풍으로부터 보호하심

하나님은 바울을 거친 폭풍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몇몇 다른 죄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탈리아로 출항하기 위해서 백부장에게 인계되었습니다. 바울은 백부장에게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행 27:10)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행 27:11). 얼마 후 진짜로 거대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 사도행전 27:14~20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써 보십시오.

바울이 경고했던 폭풍은 너무도 격렬해서 선원들은 화물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심지어 배의 연장들도 던져야 했습니다. 숙련된 선원은 아니었지만 죄수 바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든 탑승자들을 이끌었습니다.

※ 거센 폭풍 속에서 바울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행 27:22~36).

벧전 1:5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권위를 주셔서 바울은 백부장에게 명령하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그와 함께 한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을 자연의 폭풍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난파선 군인들로부터 보호하심

하나님은 바울을 난파선 군인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배가 사주에 부딪혀 좌초되었을 때 군인들은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행 27:42). 죄수들이 도망가면 호송군인들은 처형되어야 했지만 하나님은 백부장을 통하여 죄수들을 죽이려는 그들의 의도를 막으셨습니다.

행 27:43

하나님은 군인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국가의 힘 위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도처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잔인한 통치로 인해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며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바울과 함께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바울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 때문에 다수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가정, 이웃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습 3:12

요 12:24

독사로부터 보호하심

하나님은 바울을 독사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 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붓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행 28:3~6).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불에서 나와 바울을 공격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요일 4:4

엡 6:11

종종 사탄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사역을 마칠 때까지 완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그 과정 뒤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모든 준비를 완벽히 마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자들입니다. 폭풍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어둠의 나날을 보내었던 바울처럼, 비록 여러분이 다 잃은 것처럼 보이고 들릴지라도 바울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고전 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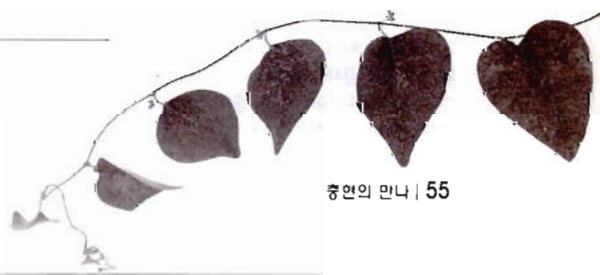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탈진되었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풍파로부터도 완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이 죄악 된 세상이 주는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살전 3:7 _____

고후 4:17~18 _____

| 간절한 기도 |

- ① 주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 ② 매순간 회개하며,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게 하소서.
- ③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여호수아 3장
찬송가 391장

목/상/노/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노정에서 마지막 장애는 요단 강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싯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른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곳에 유숙하며 요단 강 도하를 준비합니다(1~4절).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7~8절).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행하고 그 뒤를 따르는 자들 앞에 요단 강의 물이 끊어져 독처럼 멈추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가게 됩니다(11~17절).

요단 강 도하 기사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가나안 정복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한 명령과(5절), 도강 시에 여호와와의 언약궤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6절) 등은 그 전투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단 강은 가나안 땅과 광야 사이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 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16절). 곧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어진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된 것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수 3:17)

•곡식 거두는 시기(15절) : 추수하는 때로서 3~4월을 가리킨다. 이 시기에는 레바논의 눈이 녹고 또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요단 강은 일 년 중 이때 최고의 수위를 나타낸다.

기도제목

①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백성이 되게 하심에 감사하게 하소서. ② 2011년,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둔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노트

열두 돌

23

요단 강 건너기를 마치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 백성의 각 지파대로 열두 사람을 택하여 요단 강에서 각자 돌을 하나씩 가져올 것을 명하셨습니다(1~3절).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강에서 있고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요단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 후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나오자 요단 강에는 다시 물이 흘렀습니다(11~18절). 요단 강에서 취한 열두 돌은 길갈에 세워졌습니다(19~24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강 가운데서 있는 동안 모두 강을 건넜습니다. 성경은 많은 시간이 걸렸을 법한 이 장면을 단 한 줄로 요약한(1절) 반면 요단 강에서 열두 개의 돌을 취하여 쌓는 일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두 돌을 쌓는 일의 중요성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열두 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 약속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러한 표징을 통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후손들에게 알려서 장차 올 메시아를 고대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법이 결코 없으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는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나 하거든(수 4:6)

여호수아 4장
찬송가 267장

목/상/노/트

• **길갈(19절)**: 예리고에서 북서쪽으로 약 25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이곳은 여호수아 진영의 총사령부 역할을 담당했다.

기도제목

① 내가 진실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소원인지,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인지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기도노트

생명의 양식

여호수아 5장
찬송가 198장

목/상/노/트

• 애굽의 수채(9절) : 광야 생활 동안 애굽인들이 조롱한 것을 가리킨다. 애굽인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백성이라고 조롱하였다(민 14:13~16; 신 9:28).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소유의 땅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때의 치욕이 제거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요단 강을 건넜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단 강 서편의 여러 왕들은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단 강을 천연적인 방벽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1절). 요단 강을 건너 길갈에 머무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2~9절). 할례를 다 마치고 길갈에 머물며 낮기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10~11절).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며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그쳤습니다(12절).

먹을 것 하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살았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으며, 반석에서 물을 쏟아 주심으로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쯤에서 그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주신 양식이었습니다. 또한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만나를 주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양식이요, 하늘의 양식이며, 영원히 죽지 않는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며,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할 양식입니다. 만나는 그쳤으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의 은총은 절대로 그침이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떡을 구하여 먹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도 예수, 그 이름으로 찬만하고 배부른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수 5:12)

기도제목

① 오늘도 생명의 양식이요, 하늘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고 만족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기도노트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1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라고 명령하십니다(3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앞에 일곱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언약궤 주위에는 무장한 사람들을 세워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이 작전은 칠 일 동안 계속되었으며 백성들은 오직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 침묵하며 성을 돌았습니다(10~21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여리고 성은 무너져 내렸고,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15~27절).

여리고 성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고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이 군사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대장 되셔서 이끄시는 정복 전쟁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확하게 인식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도저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 되지 않아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 내 생각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해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비록 모순되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나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며 또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6장
찬송가 357장

목/상/노/트

• 여호와와 곳간(19절) : 보물이 저장되던 장소이다. 왕정 시대에는 성소 옆에 붙어 있었다(민 31:54 : 왕상 7:51 : 대상 29:8)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수 6:27)

기도제목

① 기적 중에 기적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진리로 믿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로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에 배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26

여호수아 7장
찬송가 197장

목/상/노/트

패전의 원인

전고한 여리고 성을 별다른 힘을 쏟지 않고 함락시켜버린 이스라엘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이 성도 무너뜨릴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이삼천 명만 있으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산은 참패로 돌아왔으며, 그들의 마음은 녹아 물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2~5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패배로 인하여 극도의 슬픔에 빠진 가운데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 종일 기도하였습니다(6~9절). 하나님은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패배의 원인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바친 것을 누군가가 훔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를 색출하여 처단할 것을 명령하십니다(10~15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비를 뽑자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훔쳐서 그의 장막 안에 숨겨두었습니다(16~21절). 결국 온 이스라엘은 아간을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돌로 치고 불살라버렸습니다(22~26절).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 성 정복에 나선 이스라엘이 의외의 패전을 하게 된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아이 성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성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경험과 나의 의지, 나의 뜻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아간의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욱 근신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 **아골 골짜기(24절)** : 문자적 뜻은 '괴로움의 골짜기'이다. 시해로부터 북서쪽으로 7km, 여리고로부터 12km 떨어져 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수 7:20)

기도제목

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더욱 근신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27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되었던 아간을 처형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다시 전능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 성 정복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매복 전술을 지시하십니다. 또한 여리고 정복 전쟁 때와는 달리 아이 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들을 취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며, 전투에 참여할 군인도 삼만 명이나 투입되었습니다(1~3절).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매복해 있다가 그들과 밤을 보내고 이른 아침부터 전투를 진두지휘했습니다(9~10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치밀한 매복 작전을 수행한 그들은 아이 성을 완전히 정복합니다(18~25절). 여호수아는 아이 성을 정복한 후 곧바로 다른 성을 정복하는 전쟁에 임하지 않고, 에발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습니다(30~31절). 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단을 쌓은 후, 이제 그들이 지켜야 할 삶의 규범인 율법을 돌에 새기고, 이방인들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었습니다(32~35절).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명령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이 성 정복에서는 보통 전쟁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전에 경험하게 하신 은혜로만 살 수 없습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새롭게,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에 어떤 방법을 왜 쓰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수 8:1)

여호수아 8장

찬송가 491장

독/상/노/트

• 축복과 저주(34절) : 신약에서 축복은 '선명한 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쇠하거나 두려워지지 않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다(엡 1:3 : 뱀전 14).

기도제목

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시려고

석 달 동안 선교팀을 구성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선교지로 향했다. 우선, 복음을 접하지 못한 지역을 택하여 사골에서도 한 시간 이상 더 들어갔다. 처음으로 바라보는 선교지는 말할 수 없는 충격 그 자체였다. 쓰러질 듯한 움막집에서 벌거벗은 사람들이 빗물을 받아먹으며 오물로 범벅이 된 가족들과 뒤엉켜 살고 있었다. '저런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걱정하며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도 많은 생명들을 처소마다 예비해 놓으셨다.

오지 마을로 들어가는 곳에는 황금빛을 발하는 사원이 있었고, 그 앞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까만 눈을 깜박거리며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여 아이들을 모두 운동장에 모이게 했다. 검은 얼굴에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선생님과 함께 영접기도를 하고 찬양을 목이 터져라 반복하여 가르쳤다. 모두 따라서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렸다. 사역을 하는 곳마다 주님의 섭리를 느꼈다.

일일이 되며 한 그리스도

[배경]

사역지의 날씨, 거리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 들에서 일하는 젊은 부부, 곡식을 찧는 가족들, 학교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는 학생들... 수많은 어린이들을 만나면서 일일이 말씀을 읽게 하고 영접기도를 같이 하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어떤 아주머니는 두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떤 사람들은 비를 맞으면서도 시키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기도를 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고 매시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에 찬양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박정운(집사, 20교구)

300명의 영웅들
사사기 7:7~8

확신
누가복음 23:44~46

어려운 상황에서의
보호하심
사도행전 27:24~26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납시다
누가복음 10:25~37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8 주일

29 월요일

☐ 여호수아 9장

30 화요일

☐ 여호수아 10장

31 수요일

☐ 여호수아 11장

1 목요일

☐ 여호수아 12장

2 금요일

☐ 여호수아 13장

3 토요일

☐ 여호수아 14장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납시다

| 초점 |

믿음은 십자가로 가게 한다

| 찬송 |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 본문 | 누가복음 10:25~37

25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28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참 좋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눅 10:25). 이에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되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눅 10:26). 그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눅 10:27)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눅 10:28). 그때 율법교사는 골치 아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눅 10:29).

※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정리해 보십시오.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이 비유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가르치며 누가 진실로 우리의 이웃인지 보여줍니다.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 놀라운 비유를 살펴봅시다.

강도 만난 자

강도를 만난 자가 죄인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러 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한 축복의 장소를 상징하지만 여러고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진 곳이었습니다. 강도를 만난 자는 마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죄인들처럼,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 53:6

강도들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요 10:10). 이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거의 죽을 때까지 때렸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는 행위는 마치 의로움이 없는 인간과 같습니다. 또한 거의 죽은 그의 상태는 죄인들의 영적 삶의 전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모두 사탄의 먹이가 될 타고난 죄인들입니다.

엡 2:1~3 / 그는 _____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_____ 이었더니

딤후 1:15

레위인과 제사장

레위인과 제사장은 오늘날의 교역자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강도를 만난 자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어 누가 봐도 도움이 꼭 필요할 때,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만약 죄인이 고통 중에 눈을 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뒤 눈을 떴을 때 바로 앞에 똑바로 서 있는 교역자를 본다면 그는 아마도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의 교역자들이 이 불쌍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왜 나쁜 길을 따라 걸어갔냐고 말하며 옳은 길로 갔어야 했다고만 말하는 데 있습니다.

※ 레위인과 제사장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강도를 만난 자는 모든 것을 잃은 자였습니다. 그는 구원이 절실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가르침과 예식을 상징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거의 죽게 된 여행자를 위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설명과 가르침,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엡 4:25

골 2:8

갈 5:4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죄인들의 구주를 대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마리아인들은 마치 예수님이 그랬듯, 이스라엘에 의해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사 53:3).

마 20:19 _____

행 2:23 _____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눅 10:34). 사마리아인은 자신보다 잃어버린 자에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만약 그의 돌봄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죽었을 것입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값을 치르셨듯,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다시 올 때까지 드는 모든 치료비를 지불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 약속하신 것처럼 사마리아인은 다시 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 14:1~3 _____

계 22:20 _____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며 우리 중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진리를 찾는 데 쓰고 있지만 대부분의 길이 무의미한 결론에 이릅니다. 처음에는 다들 좋게 들리지만 참된 진리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의해 거부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참 진리를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참사랑, 십자가로 가게 합니다.

※ 선한 사마리아인과 예수님이 세상에 의해 거부당한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빌 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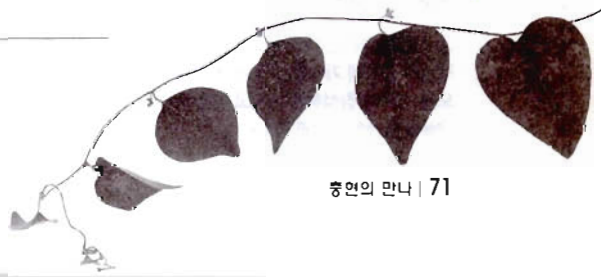
롬 8:17 _____

요일 3:13 _____

| 간절한 기도 |

- ① 선한 사마리아인의 실천이 있게 하소서.
- ②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올지라도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 ③ 매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진정한 승리

여호수아 9장
찬송가 353장

목/상/노/트

• 기랴아렘(17절) : 블레셋인이 돌려보낸 법제가 20년간 이곳에 있다가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 갔다(삼상 6:21, 7:1 ; 대상 13:5~10)

이스라엘에 의해 여리고와 아이가 정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힘을 모아 공동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동맹을 맺었습니다(1~2절). 그러나 기브온 거민은 먼 나라에서 온 것 같이 위장한 사신들을 보내어 이스라엘과 동맹할 것을 제안했습니다(3~11절).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여호수아가 동맹을 수락했으나 삼 일 후에 그들은 스스로 신원을 드러내었습니다(16절).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바를 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들의 목숨을 살려 주었습니다(26절).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출 34:15~17). 또한 신약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고후 6:14). 그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나 우상 숭배자들과 어울려 교제함으로써 그들의 악한 행위에 물들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도 않고, 성급히 화친 조약에 동의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아이 성 전투의 승리로 인해 다분히 들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 성이 함락 되고 나서도 들뜬 마음에 아이 성을 치러 갔다가 처절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승리에 대한 도취와 교만함이 얼마나 큰 죄를 낳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승리에 대한 도취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수 9:15)

기도제목

① 진정한 승리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의 승리에 기뻐할 수 있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한 것과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사실을 듣고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려움은 라합이나 기브온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과 맞서 싸우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1~5절).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자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 그 약속을 이행합니다(6~7절). 아도니세덱은 주변 국가와 연합군을 결성하여 여호수아의 군대와 결투를 벌였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에 싸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적들이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맞아 죽은 것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죽은 자가 훨씬 많았고, 태양과 달까지 멈추게 하시어 적들을 이기게 하신 사건은 전쟁의 승리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가르쳐줍니다(8~15절). 여호수아는 아모리의 다섯 왕이 굴에 숨었다는 사실을 듣고 굴을 막아 지키게 한 후, 적들의 후미군대를 공격하여 적들을 거의 전멸시켰습니다(16~28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승리를 주신 것처럼, 이번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달을 다스리고, 태양을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실로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오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만 바라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수 10:14)

여호수아 10장

찬송가 356장

목/상/노/트

•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28절) : 가나안 모든 족속에 대한 이스라엘의 철저한 정복은 결국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기도제목

① 나의 편견, 나의 생각, 경험을 버리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가장 강력한 무기

여호수아 11장
찬송가 456장

목/상/노/트

가나안의 중부 지역(수 6~8장)과 남부 지역(수 9~10장)이 이스라엘에게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하솔 왕 야빈에게 들리자 야빈은 북부 지역 동맹군을 일으켜 메롬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1~5절). 이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불러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시자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북부 동맹군을 쳐서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6~9절). 결국 북부 동맹군을 이끌던 하솔 왕이 처형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북부 지역까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10~15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온 땅을 취하게 하셨으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사업을 끝마치고 그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하셨습니다(23절).

당시 이스라엘 군대와 가나안 동맹국들 간의 전력을 비교해보면, 병기나 군사 수효, 그리고 각 군사들의 전투 역량 면에서 이스라엘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열약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전쟁사에 길이 남을 만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가진 단 하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야말로 믿는 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순종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의 대명사이신 예수님도 절대로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죽음에 순종하셨기에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수 11:15)

• **아낙 사람(21절)** : 팔레스타인 서남부 고지대에 살았던 가인족으로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크고 힘이 센 족속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었다(신 1:28, 2:10, 9:2).

기도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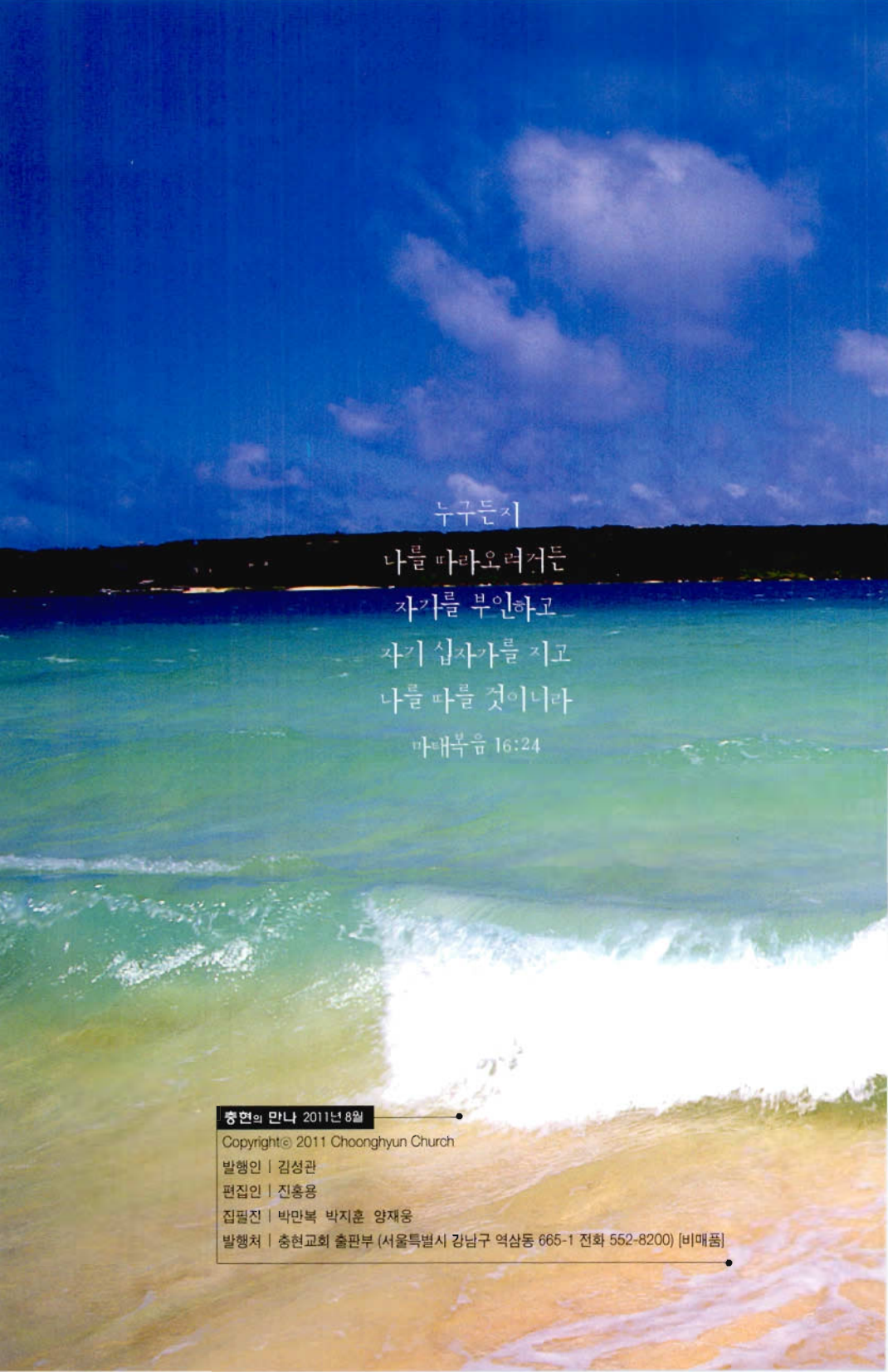
① 내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illegible]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1년 8월

Copyright © 2011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진홍용

집필진 | 박만복 박지훈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